

앵글에 담은 연꽃세상

부처의 미소 선암 스님 글 · 사진 | 시공사 | 1만8천원



우리의 청정한 본성을 일깨워주는 연꽃. 선암 스님 작품.

선암 스님 사진집
蓮 110컷 · 시 40편 수록

연꽃의 계절, 여름을 맞아 불교사진가 선암 스님(서울 봉원사)의 연꽃 사진집 <부처의 미소>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30년 전 카메라와 인연을 맺은 후 국내는 물론 동남아시아 곳곳을 찾아다니며 연꽃을 카메라에 담아온 선암 스님은 국내외에서 아홉 차례나 전 시회를 연 연꽃 사진 전문가다. 스님이 사진집을 펴낸 것은 <연꽃의 미소>(1989)와 <연꽃의 향연>(1998)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찍어온 연꽃 사진을 집대성한 사진집 <부처의 미소>에는 110여 컷의 아름다운 연꽃 사진과 40수의 짧은 시가 담겨 있다. 스님은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촬영해 온 연꽃 사진을 현대인들에게 보시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러운 진흙 속에 피면서도 그 더러움에 들들지 않는 연을 통해 번뇌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만 올바르게 되면 자신과 주위를 맑게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부처의 미소>를 집한 이애주 교수(서울대 · 중요무형문화재 27호 살풀이 기능보유자)는 "이 책은 청정함을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서원"이라며 "사진집을 통해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나아가 주위를 맑고 향기롭게 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엄경>에 나오는 청련(靑蓮), 황련(黃蓮), 백련(白蓮), 적련(赤蓮) 중 아직 구경도 하지 못한 청련을 카메라에 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스님은 사찰 사진을 찍기 위해 7월 말 몽골로 떠난다. 8월말에는 황산(黃山)을 촬영하려 중국에도 갈 예정이다.

한편 8월 16일부터 열리는 서울 봉원사 연꽃축제에서는 이번 사진집에 실린 사진을 볼 수 있는 연꽃 사진 전시회가 마련될 계획이다.



22년간 매일 1000배 정진 뇌성마비 이겨낸 화가의 '꿈'



오체투지
한경제 지음 | 반디미디어 | 9천원

뇌성마비라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나 다섯 살까지 걸지도 못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맑은 입안에서 맴돌고 사지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허우적거리며 걸어야 했던 아이는 끊임없이 동네 꼬마들의 놀림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고열과 심한 경련에 시달리게 됐고 병원에서 부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죽어가는 딸아이를 데리고 해인사 백련암으로 향한다.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 밤낮을 갈차 3천배를 마친 아이에게 스님은 화선지에 흰 하나를 그려 건네준다. "네 몸을 건사하러거든 매일 천 배를 하라"는 말과 함께.

그때부터 '무너지듯 앉아서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일배(一拜)인 절을 22년 동안 매일같이 천배씩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동양화가 한경제(29 · 사진) 씨다. 한 씨가 최근 펴낸 <오체투지>는 그의 힘겨운 성장기록이자 '절 체험기'다.

어린 시절,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동네 아이들의 돌 세례를 받았던 기억, 끝없이 절

을 하며 "왜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듯이 절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끝없는 회의와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야 했던 기억들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제대로 걸지도 못해 동생 등에 업혀 등하교를 하던 한 씨는 절을 시작한 뒤로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어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됐다. 또한 화가의 꿈을 키워 온 한 씨는

죽음 앞두고 성철 스님 만나 절수행 시작 보통사람도 오르기 힘든 히말라야 등정

뒤늦게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그림을 배웠고,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의 특선과 5번의 입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1996년 대학을 졸업한 한 씨는 또 다른 '고행'을 자처한다. 매일 만배를 하는 백일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하루 4시간만 자며 17시간씩 절을 해야 하는 수행이었다.

"절 수행의 극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만 배 백일기도를 하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변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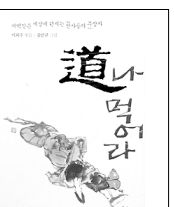
처럼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낱자를 헤아리지 않기 위해 달력도 떼어 버린 후 오지 절에만 집중했다. 몸은 매를 맞는 듯한 통증과 온몸을 뒤덮은 땀때에 시달리며 백일기도를 마친 후 한 씨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후 일반인도 하기 힘들다는 히말라야 등정과 두 번에 걸친 만배기도를 통해 그는 점차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걷어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한 씨는 요즘 경남 진영에서 '작가의 집'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그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고 말한다.

"저는 절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절을 나를 낮추기도 하지만 저를 우뚝 서게도 만들어준 지혜이며 자유였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장애를 안고 있는 많은 이들이 저의 '절 체험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현대사회에 던지는 선사들의 주장자



도나 먹어라 이외수 역음 | 김만규 그림 | 복인 | 9천5백원

<장수하늘소>와 <백요곡하다> <괴물> 등의 베스트셀러를 낳은 소설가 이외수 씨가 '개떡같은 세상'에 '선사들의 주장자'를 던진다. 기인, 도사 등의 이미지가 강한 이 씨가 최근 펴낸 <도나 먹어라>는 선의 시조로 불리는 달

마 대사와 선의 황금시대를 열어젖힌 6조 해능 선사, 평생 청렴한 생활을 실천한 백장 선사 등 중국 60여 선사들의 일화 94편을 담은 책이다.

"진정한 불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의 땀을 후려친 일제 선사, "부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는 질문에 "자네 발끝을 보라"고 답한 구도자 등 선사들의 깨달음의 순간을 풀어냈다. 서문도 없고 일화에 덧붙이는 역자의 해석도 없

는 이 책에서 이 씨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 온 정신세계의 분류가 바로 선(禪)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중앙미술학원 중국화계 대학원에서 6년간 공부한 김만규 교수(홍익대 미술대)가 각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수묵화를 곁들였고, <전등록>과 <선가귀감> 등에서 가져온 글귀도 담았다. 담백한 글과 그림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선사들의 깨달음을 조금은 맛볼 수 있다.

여수형 기자

새로운 책



■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펴냄, 7천원) = 7·8월호에서는 '한국불교학 영문서적 발간,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특집을 엮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영문서적 발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불교학 관계 저술의 영역 문제를 점검해 본다. 명상수행가 최연철 씨의 기고문 '불교의식음악이란 무엇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계의 명상, 의식음악 11곡을 담은 음악 CD도 부록으로 마련되어 있다.

■ <불교문예>(현대불교문인협회 펴냄, 8천원) = 2004년 여름호는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 불교특집'으로 꾸며졌다. 민영, 이상부, 유안진, 홍신선 시인 등 20여 시인의 불교시와 회원 불교시 30여 편이 담겨 있다. '제9회 현대불교문학상' 시부문 수상자인 이시영 시인의 대표시와 박남희(고려대 강사) 씨의 시인론 '인위와 무위의 변증법'도 볼 수 있다.

■ <대학강의>(남회관 지음, 설순남 옮김, 씨앗을 뿌리는 사람, 3만8천원) = 1918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불교에 귀의한 후 유·불·도교를 넘나들며 대중에 전통사상을 설파해 온 남회관(南懷瑾) 거사가 <대학(大學)>을 풀어냈다. 중국역사상 여러 제왕을 실례로 들며 '수신'에서 '치국·평천하'에 이르는 리더십론이 눈길을 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시야 문집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2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정화 스님	이른 아침
3	스님이야기	지록 스님 외	여시아문
4	영가천도	우통 스님	효림
5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6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7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스님	효림
8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문화	이웅 반	수희재
9	정경도론	붓다교사	초기불전연구원
10	숫타니파타	지현 스님	민족사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겹의 체중을 통쾌하게 벗어주는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제권 선사(전장 선사님 인가계좌)의 감로법문 일시: 매일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외강판 스페셜형강판 슬라브, 사철, 고외,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이젠 1시간만 투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氣차게 잘하는법

(출판중 호평받은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입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입니다.
- 세치의 혀를 잘못 눌러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무섭다.
- 절, 영봉, 독경, 주력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입으로 숨을 들이 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병고약년의 어귀석은 것이다.

○ 합창하고 일어설 때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어서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꼭 차는 경지!!!

- 절할 때 힘이 빠지고 몸살과,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납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된 것

○ 절중에서 숨을 내쉴때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엔돌핀,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환희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 열매거리며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약년의 직접 원인!!!

- 상기법,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이드비,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저체중, 치매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찬바람, 먼지, 세균, 병원균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워지며 성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바로나 병자, 불행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빠른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치유하십시오.

★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수련으로 단시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

▶ 수련일시: 매주 화요일 낮: 2시, 저녁: 7시
▶ 수련비: 입외비(만원), 수련비(2만원): 3회 교육(기부)
▶ 오시는길: 지아침 5, 7호선 군사점철역 4번 출구에서 전호방향으로 100M 이상스 가구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사법당
☎ 전화: 02)456-4994, 0035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氣차게 잘쉬는법" 책 9월 출간 예정

국제보살수계대법회
(8월 20일 - 22일, 3일간)

팔공산 갖바위 약사암은 한국불교의 최대 기도처로 널리 알려진 갖바위 부처님의 정기를 이어 받은 청정 기도도량입니다. 이곳 약사암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환생한 생활로 널리 알려진 티벳 잠보스님을 비롯하여 왕켄스님, 수지스님, 누루보스님, 고리스님 일행을 초청하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국제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무 동참하시어 좋은 인연 지으시길 바랍니다.

약사암 주지 일여 합장

수계법회 일정

- 첫째마당 - 8월 20일 금요일(음 7. 5) 오전 11시 ~ 오후 3시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 타목 (打鑼) 퍼포먼스 (울산 리호재)
- 둘째마당 - 8월 21일 토요일(음 7. 6) 오전 11시 ~ 오후 3시
- 마정수기 법회
- 관음예찬 독송 (일중 큰스님)
- 셋째마당 - 8월 22일 일요일(음 7. 7) 오전 11시 ~ 오후 3시
-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 법어 (법화중 중장)
- 타목 (打鑼) 퍼포먼스 (울산 리호재)
- 선시음악역 오후 3시 ~ 5시
- 장대민 (갖바위 가수)
- 김용빈 (천재소년 트롯트 가수)
- 나훈아 (나훈아 모창가수), 박미희 외

동참안내 및 문의

- 문의: 갖바위 약사암 053)852-0803
- 동참비: 한 가정 5만원 (가족 전원 축원, 수계 2명)
- ※ 전 가족이 수계를 받을 경우에는 금강진(특수보) 한 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부전(행차)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11-9585-4908 혜봉스님

팔공산 갖바위 약사암

시주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청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부